

2020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수능특강 p. 60

작품 분석

위백규, 「농가 구장(農歌九章)」

서산의 도들벧 셔고 구웁은 느제로 내다

(하루의 시작)

비 뒷 무근 풀이 뉘 밧시 짓터든고

(처리해야 할 노동 과업)

두어라 츠레지운 날이니 밋는 다로 밋오리라

<제1수>

→ 아침에 김매기를 위해 나섬

도통이에 흙의 걸고 썰 곱은 검은 쇼 물고

(농촌의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생활을 묘사함)

고동풀 쫓 머기며 깃물 궂 느려갈 제

(농촌 생활의 단상을 표현함)

어딴서 품 진 벧님 흙씩 가자 흥느고

<제2수>

→ 농구를 준비하여 내려감

(뽀아 내자)

돌너내자 돌너내자 긴츄풀 돌너내자(김매기를 함께하는 공동체적 모습) ☐ :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바라기 역고를 골골마다 돌너내자

(잡초의 일종)

쉬 짓튼 긴 스래는 마조잡아 돌너내자

(농촌 공동체의 협동적 태도 부각)

<제3수>

→ 일터에서 김을 맴

좁은 들는 대로 뚫고 벧은 썰 대로 췌다

(여름 노동의 어려움(대구), 성실한 노동의 태도)

청풍의 옷깃 열고 긴파람 흘리 불 제

(노동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한 휴식)

어디서 길 가는 소님네 아는 득시 머무는고

<제4수>

→ 땀 흘리며 일을 함

(밥그릇)

헝긋에 보리 므오 사발의 콩넉치라

(소박한 점심(보리밥, 콩일 나물))

내 밥 만홀세요 네 반찬 적글세라

(상대에 대한 배려의 모습)

먹은 뒷 혼숨 즈경이야 네오 내오 다홀소나

(설의법, 농촌 생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제5수>

→ 점심을 먹고 졸려 함

돌라가자 도라가자 히 지거단 도라가자

☐ :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계변의 손발 식고 흙의 메고 돌아올 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옴)

어디서 우배초격이 흙씩 가자 킵아는고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제6수>

→ 일을 끝내고 돌아감

(목화)

면화는 세 득래 네 득래요 일원 벼는 띄는 모가 곱는가

(구체적인 소재를 들어 풍요로운 수확을 짐작하게 함)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분이로다

아마도 하늬님 너희삼길 제 날 위흔야 삼기샷다

<제7수>

→ 7월에 풍요로운 결실을 봄

아히는 낙기질 가고 집사툼은 저리치 친다

(가족 구성원의 생활)

새 밥 너을 싸에 새 술을 걸러서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자불 싸여 호흠 계워 호노라

(가을의 풍족함을 누리는 태도)

<제8수>

→ 농촌 생활 중 풍요로움을 누림

취흥느니 늘그니요 웃논이 아희로다

(막걸리)

호튼 순릭 호린 술을 고개 수겨 권홀쎌여

(가을의 풍족함과 흥을 함께 나누는 모습)

뉘라셔 호르장고 긴 노래로 차례 춤을 미루논고

(노동의 보람에서 비롯된 흥의 표출)

<제9수>

→ 흥겹게 서로 어울림

★ 주제: 농촌 생활과 그 보람

작품 정리

위백규, [농가 구장]

〈해제〉

이 작품은 농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인 농촌을 시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농민의 삶을 그린 연시조이다. 전원(田園)을 건강 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농업 노동을 민중적 생활에 밀착하여 형상화함으로써 기존 사대부의 작품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제〉

농촌 생활과 그 보람

〈구성〉

- 제 1 수: 아침에 김매기를 위해 나섬.
- 제 2 수: 농구를 준비하여 내려감.
- 제 3 수: 일터에서 김을 맴.
- 제 4 수: 땀 흘리며 일을 함.
- 제 5 수: 점심을 먹고 졸려 함.

〈표현상의 특징〉

- 민요적인 기법인 ‘a-a-b-a’형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바라기’나 ‘역고’ 등의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생한 삶을 효과적으로 그려 냄
- 농촌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소재와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표현함

2020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수능특강 p. 66

작품 분석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 턴상(天上) 빅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을녀)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임금이 계신 한양 경복궁) (을녀의 상황)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느고

→ 1~3행: 을녀를 본 갑녀의 질문

어와 네이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흔가마는
 (갑녀) (사정 이야기)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임이 자신을 사랑해 준 과거를 떠올림) (다른 생각이)

이리야 교탁야 어즈러이 흐듯편디 /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른신고
 (을녀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자신에 대한 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낌)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어히니 / 내 몸의 지은 죄 피ᄃᆞ티 빠혀시니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김(임을 원망하지 않음))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랴 / 설위 플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이별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림(화자의 운명론적 인생관)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신하의 자세)

→ 4~13행: 갑녀를 본 을녀의 대답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서이다 / [님을 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 14행 첫 문장: 갑녀의 위로

물 ᄃᆞ튼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연약한 몸)

츨일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느고 /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피 네와 ᄃᆞ티 세시느가
 (아침밥을 먹기 전에 먹는 죽) (밥)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느고
 ([: 임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남])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자 히니 /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남(임금이 자신을 불러 주기를 기다림))

내 므음 들 뒤 업다 어드러로 가갓말고 / 잡거니 밀거니 놓픈 피히 올라가니
 (화자의 심리적 방황) (임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구름은 꺾니와 안개는 뜨스 일고 /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구름, 안개 - 당시에 조정을 어지럽히는 간신들)

(막막한 상황)

(임금을 상징함)

□ :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ᄃᆞᆫ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 ᄃᆞᆫ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빈 벽만 걸렸노고 /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정물)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첩(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흐야 불갓노고

(초가지붕의 처마)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정물)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즙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쑤의 님을 보니

(임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옥(玉) ᄃᆞᆫ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임의 곱던 모습)

ᄃᆞᆫ의 머근 말슴 슬ᄃᆞᆫ 숯자 하니

(임에 대한 그리움의 시연) (실컷)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흐며

(반가움과 슬픔으로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반가움과 슬픔이 혼재된 상황)

오던된 계성(鷄聲)의 증은 엇디 씨뎡던고

(방정맞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꿈결)

어엿븐 그림제 날 조출 쑤이로다

(임의 부재를 더욱 강조함)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조용히 임을 비추는 존재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임금을 향한 신하의 일편단심을 드러냄)

→ 14행 둘째 문장~47행: 을녀의 하소연

각시님 돌이야꺾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을녀에게 보다 적극적인 사랑을 권함)

→ 48행 : 갑녀의 조언

★ 주제 : 연군(戀君)의 정

작품 정리

(가) 정철, [속미인곡]

〈해제〉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한 충신연주 지사(忠臣戀主之詞)의 가사로,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 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작가 정철이 지은 「사미인곡」의 속편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속미인곡」이라 불린다. 여인들의 대화가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면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임에 대한 화자의 일편단심을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연군(戀君)의 정

〈구성〉

- 1~3행: 을녀를 본 갑녀의 질문
- 4~13행: 갑녀를 본 을녀의 대답
- 14행 첫 문장: 갑녀의 위로
- 14행 둘째 문장 ~ 47행: 을녀의 하소연
- 48행: 갑녀의 조언

〈표현상의 특징〉

• 이 작품은 갑녀와 을녀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을녀는 갑녀에게 자신의 서러운 사연을 구구절절 털어 놓고 있는 반면, 갑녀는 을녀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갑녀	→	을녀	을녀	→	갑녀
	위로		하소연, 자책		

- '낙월'과 '구준비'의 상징성

: 낙월 - 밤에 먼 곳에서 임을 비춤 (소극적 태도)

구준비 - 밤낮 제한 없이 임에게 직접 닿음 (적극적 태도)

2020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수능특강 p. 78

작품 분석

정약용, 「남과탄(南瓜歎)」

(‘호박 닳두리’라는 뜻)

곳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상이 드러남)

→ 1~2행: 궁핍한 현실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내 돌아와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문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 보니 며칠 전에 끼넛거리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사정)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뺏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호박마저도 없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나타냄)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계집종이 끼넛거리를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기 때문임)

누가 네게 훔치랬나 회초리 꾸중 호되네

(계집종의 행동에 대한 아내의 꾸짖음)

→ 3~12행: 아내가 호박을 훔친 계집종을 꾸짖음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 주인에게 몇몇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아내에게 제안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 : 아내에게 하는 화자의 말)

→ 13~15행: 아내의 꾸짖음을 만류하는 ‘나’의 모습

2020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수능특강 p. 274

작품 분석

조우인, 「출새곡(出塞曲)」

북방(北方) 이십여 주(二十餘州)에 경성(鏡城)이 문호(門戶) | 러니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날을 맞겨 보내시니

(지방관의 자격으로 군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봄)

망극(罔極)한 성은(聖恩)을 갑골 일이 어려워라

[서생(書生) 사업(事業)은 한묵(翰墨)인가 너기더니 ([] : 떠날 때의 심경 → 비장미가 느껴짐)

(문학과 필묵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백수(白首) 임변(臨邊)이 진실노 의외(意外)로다

→ 서사 : 북방의 관리로 부임하게 됨

인정전(仁政殿) 배사(拜辭)하고 칼흔 잡고 도라셔니

(창덕궁의 정전에서 존경하는 웃어른에게 공경히 받들어 사례함) □ : 여정이 드러남

만 리(萬里) 관하(關河)의 일신(一身)을 다 닳패라]

(국경에 있는 성이나 요새의 근처)

흥인문(興仁門) 너드라 녹양(綠陽)의 물을 마니

(흥인지문(동대문))

(의정부 인근의 고을 이름)

은한(銀漢) 넷 길흔 다시 지나 간단 말아

회양(淮陽) 네 스실 기별만 드렸더니

(강원도의 고을 이름)

금달(禁闕)을 외오 두고 적객(謫客)은 무슨 죄고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참암(嶗岩) 철령(鐵嶺)을 험튼 말 전혀 마오

(짜아지른 듯 높이 솟은 바위와 험한 고개)

세도(世道)를 보거든 평지(平地)나 너기노라

눈물을 베끗고 두어 거름 도라셔니

장안(長安)이 어디오 옥경(玉京)이 마리거다

(하늘 위의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의 장소)

안변(安邊) 이북(迤北)은 저 즘의 호지(胡地)러니

(함경도의 고을 이름)

(국토를 넓힘)

신소(迅掃) 성전(腥膻)하야 벽국(關國) 천 리(千里)하니

(비린내와 노린내 나는 것들을 빨리 쓸어냄)

윤관(尹瓘) 김종서(金宗瑞)의 풍공(豐功) 위열(偉烈)을

(*윤관 : 여진 정벌을 하고 구성을 쌓은 고려시대의 장군)

(*김종서 : 조선 세종 때의 무신으로 육진을 개척하여 조선의 국토를 넓히는 데에 큰 공을 세움)

초목(草木)이 다 아늑다 용흥강(龍興江) 건너 드러

(함경도에 있는 강)

정평부(定平府) 잠깐 지나 만세교(萬歲橋) 압희 두고

(평안도 정주)

(함경도 함흥의 성천강에 있던 다리)

낙민루(樂民樓) 회 올라 안죽 옥저(沃沮) 산하(山河)를

(함경도 함흥에 있는 누각)

(고대 국가 가운데 함경도의 함흥 일대에 있던 나라)

면면(面面)히 도라보니 천년(千年) 풍패(豐沛)에

(중국 한나라 유바의 고향. 여기서는 함흥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이라서 풍패와 같다는 의미임)

울창(鬱蒼) 가기(佳氣)는 어제론덧 하여세라

(자연의 상서롭고 맑은 기운)

함관령(咸關嶺) 저문 날의 물은 어이 병이 든고

(함경도 함흥 동쪽에 있던 고개)

만면(滿面) 풍사(風沙)의 갈 길히 머리세라

홍원(洪原) 고현(古縣)의 천도(穿島)를 바라보고

(함경도의 고을 이름들)

(함경도 홍원군 앞바다에 있는 구멍이 뚫린 바위섬)

대문령(大門嶺) 너머 드러 청해진(靑海鎭)에 드러오니

(함경도의 고개)

(함경도의 북청도호부의 다른 이름)

일도(一道) 후설(喉舌)이요 남북(南北) 요충(要衝)이라

(매우 중요한 곳)

신신(信臣) 정졸(精卒)로 이병(利兵)을 배퍼시며

(충성심이 강하고 우수한 군사)

(예리한 무기)

강궁(强弓) 경노(勁弩)로 요해(要害)를 디키는 듯

(강한 군사력을 의미)

(군사적 요충지)

→본사 1: 한양에서 경성까지의 이동 과정

백년(百年) 승평(升平)에 민불지병(民不知兵)하니

(나라가 태평함)

(백성들이 군대를 모름)

중문(重門) 대포(待暴)를 닐너 므슴 하리오

(난폭함을 대비함)

(설의법)

거산역(居山驛) 디나 드러 시중대(侍中臺) 일어나 안자

지척(咫尺 扶桑)의 일출(日出)을 구버 보고

장송(長松) 십리(十里) 짙혀 정마(征馬)를 다시 뵈와

(먼 길을 갈 때 타는 말)

[단천(端川)을 거쳐 두고 사지현(四知軒)을 촌자 가니]

([] : 대구법)

백기 청풍(伯起 淸風)을 다시 본 듯 흔데이고

(처음 일어나는 맑은 바람)

미운령(微雲嶺) 채 쳐 너머 마곡역(麻谷驛) 물을 쉬워

적설(積雪 摩天)을 허위허위 너머 드니

(쌓인 눈이 하늘을 만질 듯이 높이 솟아 있음)

진관(秦關)이 어디고 촉잔(蜀棧)이 여기로다

(중국의 험한 길)

성진(城津) 설진(說鎭)이 형세(形勢)는 도커니와

(진을 침)

[난후(亂後) 변민(邊民)이 고혈(膏血)이 물나시니] ([] : 변방 백성의 비참한 현실)

(사람의 기름과 피)

{묘당(廟堂) 육식(肉食)은 아는가 모르는가}

(조정의 신하)

({} :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백두산(白頭山) 일맥(一脈)이 장백산(長白山) 되어 이서

천리(千里)를 한격(限隔)하야 강역(疆域)을 논하겠든

진보(鎭堡) 성라(星羅)하고 군읍(郡邑)이 기포(碁布)하니

표리(表裏) 천험(天險)은 장(壯)호미 그지업다

연천(連天) 창해(滄海)에 풍설(風雪)이 섰티는디

발섭(跋涉) 기구(崎嶇)하야 목랑성(木郎城)의 드러오니

천심(千尋) 분첩(粉蝶)은 반공(半空)의 빗겨 잇고

백장(百丈) 심호(深濠)는 스면(四面)의 둘러시니

인화(人和)를 어들선경 지리(地利)야 부족(不足)할가

원문(轅門)이 무사(無事)하고 막부(幕府) 한가(閑暇)흔 제

동산(東山) 휴기(携妓)하고 북해준(北海罇)을 거홀우라

연화(烟花) 삼월(三月)의 원수대(元帥臺)에 올라가니

춘풍(春風) 대탕(駘蕩)하야 숙경(淑景)을 부쳐 내니

만수 천림(萬樹 千林)은 홍금(紅錦)이 되어 잇고

운도 설랑(雲濤 雪浪)은 하늘을 ㄱ을 사마

분박 뇌정(噴薄 雷霆)하야 대(臺) 압희 물너디니

은산(銀山)이 거듯는가 옥설(玉屑)을 놀니는가

김 그탄 잡석에 백운(白雲) 그튼 술을 치고

천양 묘기(穿楊 妙妓)로 승부룰 뎡토거든

백대 홍장(百隊 紅粧)은 좌우(左右)의 버러 이서

진쟁 조슬(秦箏 趙瑟)을 트거니 니희거니

호치 세요(皓齒 細腰)로 추거니 부르거니

소화(韶華)도 그디엿고 풍경(風景)이 무진(無盡)하니

(봄의 화장한 경치)

일춘(一春) 행락(行樂)이 슬피염즉 헛다마는

향관(鄕關)을 바라보니 오령(五嶺)이 그려 잇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의 여진족이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두만강 하류 지역에 설치한 여섯 진)

이지(異地) 산천(山川)은 육진(六鎭)이 거의로다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러 좌천됨)

명시(明時) 적관(謫官)이 도처(到處)의 군은(君恩)이로디

(문명이 발달하여 평화로운 세상)

원신(遠身) 금전(金殿)을 뉘 아니 슬허하며

(궁전)

중입(重入) 수문(修門)을 어이하여 기필 홀고

(다시 대궐로 돌아감)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함)

평생(平生) 먹은 쓰디 전혀 업다 홀가마는

시운(時運)의 타시런가 명도(命途)의 밋엿는가

(운명과 재수)

진대(秦臺) 백수(白首)의 세월(歲月)이 쉬이 가니

초택(楚澤) 청빈(靑蘋)은 원사(怨思)도 한제이고

(초택은 초나라 굴원의 유배지를 가리킴. 청빈은 푸른 마음으로 변치 않는 충성심을 의미함)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닛다 하니

동명(東溟)을 다 퍼내다 이내 시름 어이 홀고

(동해)

→ 본사 2: 경성에서의 생활과 감회

어부(漁夫) | 이 말 듯고 낙덕을 돌너메고

(낙숫대)

비선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이

(뱃전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세사(世事)를 니전디 오라니 몸조차 니전노라]

백사(百事) 생애(生涯)는 **일간죽(一竿竹)**뿐이로다

(모든 일)

(대지팡이)

백구(白鷗)는 나와 버디라 오명가명 **흐느다]**

([] : 어부의 노래 - 세상일을 잊고 백구와 벗 삼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제시하고 있음(물아일체,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이 드러남))

→ 결사: 어부왕의 대화

★ 주제: 변방으로의 부임 과정과 임지 생활에서 느낀 소회

작품 정리

조우인, 「출새곡」

〈해제〉

이 작품은 광해군 때의 문인 조우인이 지은 기행 가사로, 작가가 함경도의 경성 판관으로 부임하는 과정과 부임지에서의 생활과 소회 등을 기록한 것이다.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정철의 가사를 전범으로 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변방 생활에서의 애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제〉

변방으로의 부임 과정과 임지 생활에서 느낀 소회

〈구성〉

- 서사: 북방의 관리로 부임하게 됨.
- 본사 1: 한양에서 경성까지의 이동 과정
- 본사 2: 경성에서의 생활과 감회
- 결사: 인생에 대한 회고와 어부와의 대화

〈표현상의 특징〉

- 대구법을 통해 리듬감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음
- 정철의 「관동별곡」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서술되어 있음
- 구체적인 지명을 적시하여 이동 과정을 보여 주고 있음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감회를 나타내고 있음
- 여정과 관련된 인물들을 언급하고 이들의 업적을 서술하고 있음